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서한을 받아안고 크나큰 격동과 신심에 넘쳐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력적 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를 받아안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들은 커다란 감격과 흥분을 금치 못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밝혀주신 위화한 설계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 총련부흥의 새 시대를 더욱 힘차게 열어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자신들의 사명과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있게 추동해나가겠습니다.》

리수성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권리복지국 부국장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서한을 받아안으면서 재일조선인운동의 높은 명마루를 향한 설계도를 명심해 주신데 대하여 감동과 경탄을 금할수 없었습니다. 저는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주권익의 옹호자, 대변자인 총련의 권리복지사업을 위해 동포들의 자주권과 생활권, 발전권을 옹호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항상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며 뜨거운 정을 안고 동포생활에 밀착한 봉사복지활동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기 위한 사색과 연구를 깊이 함으로써 동포들의 권익과 복리를 위한 투쟁에 헌신분투할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고덕우 총련도교도본부위원장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 서한을 자자구구 되새길수록 우리 총련동포들에 대한 그이의 크나큰 믿음을 깊이 새겨안을수 있었습니다. 우리 재일동포들의 복리

를 위해 나라의 억만재부를 다 기울여주고싶은것이 자신의 진정이라고, 모든 총련일군들이 우리 동포들의 모든 꿈과 리상을 다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조국의 간절한 당부를 정히 새겨안고 동포들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새로운 승리를 열어나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그이의 대해같은 사랑이 담겨져있었습니다. 우리는 총련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총련도교도본부관한 동포들의 행복한 생활과 안위를 위해 혼신을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한동성 조선대학교학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대학교사업을 각별히 중시하시며 지난해 4월 대학창

립 65돐에 즈음하여 사랑의 축전을 보내주신데 이어 또 다시 전체대회에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에서 대학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가르침을 주시었으니 뉘그러는 격정을 금할수 없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서한에서 조선대학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세워주시고 장중보육처럼 귀중히 여기시던 민주주의적민주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세상에 둘도 없는 해외교포대학이라고 내세워주시었습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 사랑, 이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총련의 미래를 떠들고나갈 믿음직한 핵심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키워 재일조선인운동의 백년대계를 역적같이 담보해나가겠습니다.》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겠다

강주련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부장 겸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의위원장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방역대전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얼마나 분망

을 일으키는것은 우리 녀성동맹과 동포녀성들이 직접 맡아안아야 할 사업입니다. 민족을 투쟁짓는 징표인 조선민족의 혈통과 언어를 고수하는 문제는 우리 녀성들에게 중요하게 달려있습니다. 우리 녀성동맹은 모든 동포녀성들이 력사와 민족애에 지닌 성스러운 사명감을 자각하고 조선사람의 혈통을 깨끗이 이어가도록 하며 자식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오직 우리 말만 하는것이 가정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국기가 없어도 조선사람임을 알게 하는 조선치마저고리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동포사회의 풍조로, 관례가 되도록 하며 가정에서 민족음식을 장려하고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적극 살려나도록 함으로써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민족전통이 굳건히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윤래길 도교조선총고급학교 교장

《저희들은 우리 학교가 원수님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민족성고수를 위한 사업에서 자기합바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자책감으로 가슴이 저려

습니다. 민족성고수에서 우리 학교들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 다. 저는 우리 교정에서 조선의 말과 글이 더욱 광량히 울려 퍼지게 하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인사를 해도

통일애국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겠다

리동제 재일조선인평화통일협회 회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전달받고 부흥하는 강성총련의 레일이 눈앞에 다가오는것만 같아 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드립니다. 저는 력사적서한에서 제시된대로 총련의 조국통일사업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시고 견지하여오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라는것을 언제나 변함없는 총련애국업의 철리로 간직하겠습니다. 저는 새세대들과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각계각층 동포들과의 민족단합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력량을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우리식으로 하고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불렀고 우리의것을 우선시하며 녀학생들이 언제나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것이 우리 학교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되도록 하였습니다.》

김상일 총련 교도본부부위원장

《재일조선인운동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귀중한 교시를 주시어 총련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는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이번 전체대회 앞으로 서한을 보내주시어 총련이 조국과 더불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고 조국통일을 위해 이바지하는 해외동포조직으로서의 자기 사명을 다해나갈데 대한 기대와 믿음,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을 주시었습니다.》

주체적애국애국운동의 백과전서적인 총서

박구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부장 겸 조직국장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할수 있는 최악의 난국을 뚫고 방역대전의 승리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총련군을 진두지휘하시는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력적서한은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위화한 앞길을 밝힌 주체적애국애국운동의 백과전서적인 총서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서한을 받아안은 저희들의 가슴은 크나큰 신심과 락판에 넘쳐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강력적 서한을 보내주시어 총련 제25차 전체대회는 그이께서

밝혀주신 위화한 설계도따라 재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력사적인 일심단결의 대회, 계승과 혁신의 대회, 력사적인 대회로 빛나게 장식되게 되었습니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위원장

《현시기 총련이 나아갈 길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 서한은 총련의 애국애국운동을 동포제일주의로 확고히 전 환하고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을 유일무이한 원동력으로 하여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갈수 있게 하는 불멸의 총서이며 승리의 기치입니다. 우리모두는 강력적서한에 담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모든 해외동포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할 뜻깊은 서한》 -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의 반향 -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에 보내주신 강력적 서한은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속에서도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혈통이 민족을 투쟁짓는 첫째 표징이라고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우리 말을 하는 시간이 곧 애국으로 사는 시간이라는 원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제 아들이 조선말을 잘하도록 교양하지 못한것이 마음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다. 이제부터라도 원수님의 높으신 뜻을 가슴에 새기고 몸은 비록 이역에 살지만 우리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말을 적극 살려쓰며 민족성을 지켜나가도록 아들교양을 잘하여 조선민족의 넘과 정신을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재중동포 리영숙
《민족성은 조국인민들도 강해야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일수록 더 강해야 한다. 정말이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언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제 아들부터 조선말을 하면서 민족의 피줄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교양하며 주변에서 사는 동포들도 조국에 대하여 옹호하고 조국인민들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재로씨야동포 우명수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위하여 한가지씩만 좋은 일을 하여도 조국의 부강변영이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재일동포들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동포들이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중동포 변수정
《이역땅에 사는 동포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는데 애국의 참모습이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력적인 가르침을 받고보니 애국이라는것이 조국에 큰 기여를 해서만이 아니라 민족의 넋을 지켜가는데도 있다는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아들뿐 아니라 손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넋을 심어주는 일을 제 일가는 일로 여기고 이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해나가 결심합니다.》
재중동포 한나리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은 총련의 동포들뿐 아니라 해외에 사는 모든 조선동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특색있게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이것은 조선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하여야 할 애국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외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에서 더 많이 배우고 조국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여 조국의 부강변영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재중동포 김영일

해외동포들의 위대한 스승

《새세대들을 비롯한 동포들속에서 위대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조국 멀리 이역땅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사상과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가 세세년년 줄기차게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원수님의 주옥같은 말씀은 저의 심장을 뜨겁게 격동시키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은 재일조선인들뿐 아니라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보내시는 투쟁강령이고 삶의 진로

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해외동포들을 조국인민들과 똑같이 격정하시며 우리들의 사업과 생활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시고 우리들이 나아갈 길을 하나하나 세심히 가르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재중동포 심용수

《우리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의 노래가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겠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조국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재일동포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해마다 보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올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은 자신의 숭고한 사명으로 받아안으시고 동포들의 마음에 그들이 질세라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끊임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또 한번의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우리 민족의 구세주이십니다.

저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환풍에 안아 키워주신 우리 해외동포들을 언제나 잊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동포애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민족의 일원으로서 조국통일운동을 적극 벌려나가겠습니다.》
재일동포 문숙경

통일투쟁의 앞길을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수 없는 민족 지상의 과업이고 제일 중대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받아안고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절세의 애국자들이 수렁으로 모시고있는가를 가슴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조국통일사업은 본질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시고 견지하여오신 하나의 조선로선을 옹호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이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적극 지지 옹호하고 그것을 내외에 널리 선전하여

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이것은 비단 총련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한에서 하신 말씀들은 우리 동포들이 이역땅에서 조국통일과 조국의 강성부흥을 위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환히 밝혀주는 고귀한 지침입니다.》
재로씨야동포 김남수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살겠다

수령님들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하시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끝없는 로고와 불같은 헌신의 길을 줄기차게 이어가고계십니다. 저는 우리 해외동포들에게 배풀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안고살것이고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살것이고 새세대들을 잘 교양하여 대를 이어 조국의 부강발전과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재로씨야동포 김미자

《외국에서 살다나니 자연히 그 나라말을 할 때가 많았도 또 그 나라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이 조선민족임을 잊을 때도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자자구구 새기면서 애국이란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생활에서부터 민족의 혈통을 고수하고 우리 말을 하는것임을 다시금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머느리와 손녀들에게 조선치마저고리부터 해입힐 생각입니다. 앞으로 조선사람의 넘과 정신을 안고 조국의 부강을 위한 일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재중동포 리영숙

《민족성은 조국인민들도 강해야 하지만 해외에 사는 동포들일수록 더 강해야 한다. 정말이지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명언입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제 아들부터 조선말을 하면서 민족의 피줄을 굳건히 이어 나가도록 교양하며 주변에서 사는 동포들도 조국에 대하여 옹호하고 조국인민들의 본분을 다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재로씨야동포 우명수

《해외에 살고있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을 위하여 한가지씩만 좋은 일을 하여도 조국의 부강변영이 앞당겨지지 않겠습니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사회주의조국을 견결히 옹호하고 문명부강한 국가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하시었는데 재일동포들만이 아니라 모든 해외동포들이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